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	생활환경과장	허정원	2133-3720
	생활환경팀장	박희정	2133-3722
	도시청결팀장	오지연	2133-3743
	담 당 자	김문균	2133-3723
박선정		2133-3725	
안정서		2133-3726	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서울시,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원 처우 개선

- 명절 격려품 및 하계휴양소 비용 6.2억 원 지원...청소대행업체 계약 시 원가에 반영
- 안전하고 쾌적한 쉴 공간 제공 등 직영·대행 환경공무원 작업환경 기본권 보장
- 친환경 청소 장비 보급 및 현대화 등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

- 서울시는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원에 비해 근무시간 및 강도, 임금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대행업체 환경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.
- 서울시 환경공무원은 총 6,775명('23.1월 기준)으로,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환경공무원(2,534명)은 가로변 청소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위탁업체 소속 환경공무원(4,241명)은 종량제 쓰레기(일반, 음식물) 등을 수집,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해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세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.
- 주요 내용은 ▲청소대행 계약 시 원가에 명절 격려품 및 하계휴양소 비용 반영, ▲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, ▲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청소장비 현대화 등이다.

□ 먼저, 예산 6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설날·추석 명절에 1인당 각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. 여름 휴가 시에는 휴양소 이용비를 1인당 7만 5천원 지원한다. 시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원에 직접적인 비용 지원은 할 수 없으므로, 자치구와 업체 계약 시 원가에 복리후생비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.

□ 서울시는 이외에도 직영·대행업체 환경공무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 설치를 위한 장소를 자치구 신청을 받아 확보한다. 청소구역 및 동선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, 인원수에 맞는 규모의 공간을 확보(1인당 최소 1.5㎡ 이상)해 환경공무원이 휴식을 취하면서 샤워·세탁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환경공무원 휴게실은 장소가 협소하거나 화장실 등이 낡고 좁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. 또한, 상당수 휴게실이 내부에 화장실, 샤워실, 세탁 시설 등 위생시설이 없어 외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.



휴게실 신규 설치



컨테이너 교체



노후 화장실·샤워실 개선

○ 시는 최근 5년간 신규 휴게실 설치,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자치구 직영, 대행업체 환경공무원 휴게실 684개소(누적)에 20.5억 원을 지원했고, 올해는 9억원을 들여 30여 개소의 시설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.

구분	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
휴게실(개소)	684	119	125	112	180	148
지원액(백만원)	2,050	200	200	200	500	950

□ 청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 청소장비 (전기전동카트 등) 155대 보급 등 장비 현대화로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안전 교육 운영비를 지원해 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.

○ 주택가 골목길, 시장 등 청소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전기전동카트 50대, 가로 청소용 노면청소기 30대를 보급하고,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배출이 없는 친환경 전기 송풍기 75대를 함께 보급한다.



전기 전동카트



전기 노면 청소기



전기 송풍기

○ 또한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을 위해 '22년 156백만 원을 자치구에 지원하였고, 올해도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.

□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“대행업체 환경공무관은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하다”며 “이번 청소대행계약 원가에 명절 격려 및 하계휴양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행 환경공무관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